

B05 교육지표마당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6·29 학원 민주화 시위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11명이 비민주적인 교육정책과 국민교육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관련 교수들이 해직되었으며,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전남대 학생들은 6월 29일 교육지표 선언 교수들을 지지하는 시위 및 농성에 돌입한다. 이 사건으로 관련 학생들이 징계를 당하고, 구속되었다.

B06 벽화마당 광주민중항쟁을 그리고, 칠하다



이 벽화는 전남대학교 벽그림 추진위원회가 1990년 6월 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완성한 '광주민중항쟁도'로, 2017년 복원한 것이다. 5·18민중항쟁을 형상화한 유일한 벽화로 밥을 짓는 모습은 '공동체 정신'을, 백두산 천지와 팔방 낚친년 4명은 민주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학생운동의 열망을 담고 있다.

B07 오월열사 기억정원 오월을 기억하고, 열사의 꿈을 이룬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에서 전남대 학생 김광석이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5월 27일 전남도청 최후항쟁에서는 서호빈, 류영선, 이정연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계엄군의 폭력에 끝까지 저항한 4명의 전남대 오월 열사를 기억하고자 정원을 조성했다.

B08 용봉열사 추모의 벽 이 땅의 민주주의에 새겨진 이름들



1952년 개교 이후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용봉열사를 기억하고자 한다. 이 벽에 새겨진 이름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 인권, 평화가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어진 것임을 겸허히 깨닫게 한다. 이들의 숭고한 뜻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재학생과 동문,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B09 박승희 정원 민족자주의 코스모스



박승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면서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규탄하고, 학우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 분신했던 민주열사이다. 그녀는 1991년 4월 29일,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에서 "2학우여 단결하라!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미국놈들 몰아내자!"를 외치며 분신했다. 21일간 병상 투쟁 끝에 5월 19일, 21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B10 전남대 정문 민주화의 문을 열고, 민주·인권·평화의 길을 내딛다



전남대 정문은 보다 나은 세상에 꿈꾸었던 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쳤던 장소이며, 5·18항쟁이 시작된 곳이다(5·18민중항쟁 사적 1).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전남대를 장악하자, 대학생들의 저항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정문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이를 지지하려는 국가권력이 충돌했던 곳으로,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발전기금 약정서

후원 정보	
기금용도	<input type="checkbox"/> 대학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연구시설기금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등록금 지원 □학생 역량 개발 지원 □생활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도서기금 <input type="checkbox"/> 후생복지기금
사용기관	<input type="checkbox"/> 대학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_____ * 사용기관(대학/기관/학과)을 지정할 경우 사용기관명을 적어주세요
사용방법	<input type="checkbox"/> 원금 사용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이자만 사용)
기부자 정보	
이름	□익명요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작성
주소	
연락처	이메일
직장명	직위
본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기업·단체
* 동문 작성 대학 학과	
결제 정보	
□ 정기 후원	후원액 월 _____ 원 방법 <input type="checkbox"/>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전남대 교직원만 가능) 후원기간 _____ 년 _____ 월부터 _____ 년 _____ 월까지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일자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자유 후원	후원액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 광주은행 074-127-000259 (전대기금) ▶ 농협 355-0007-2433-63 (전남대학교) ▶ 국민은행 570-01-0000-395 (전남대학교발전기금) ▶ 신한 131-004-685432 (전대기금)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보존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삭제하여 드립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fund.jnu.ac.kr

_____년 _____월 _____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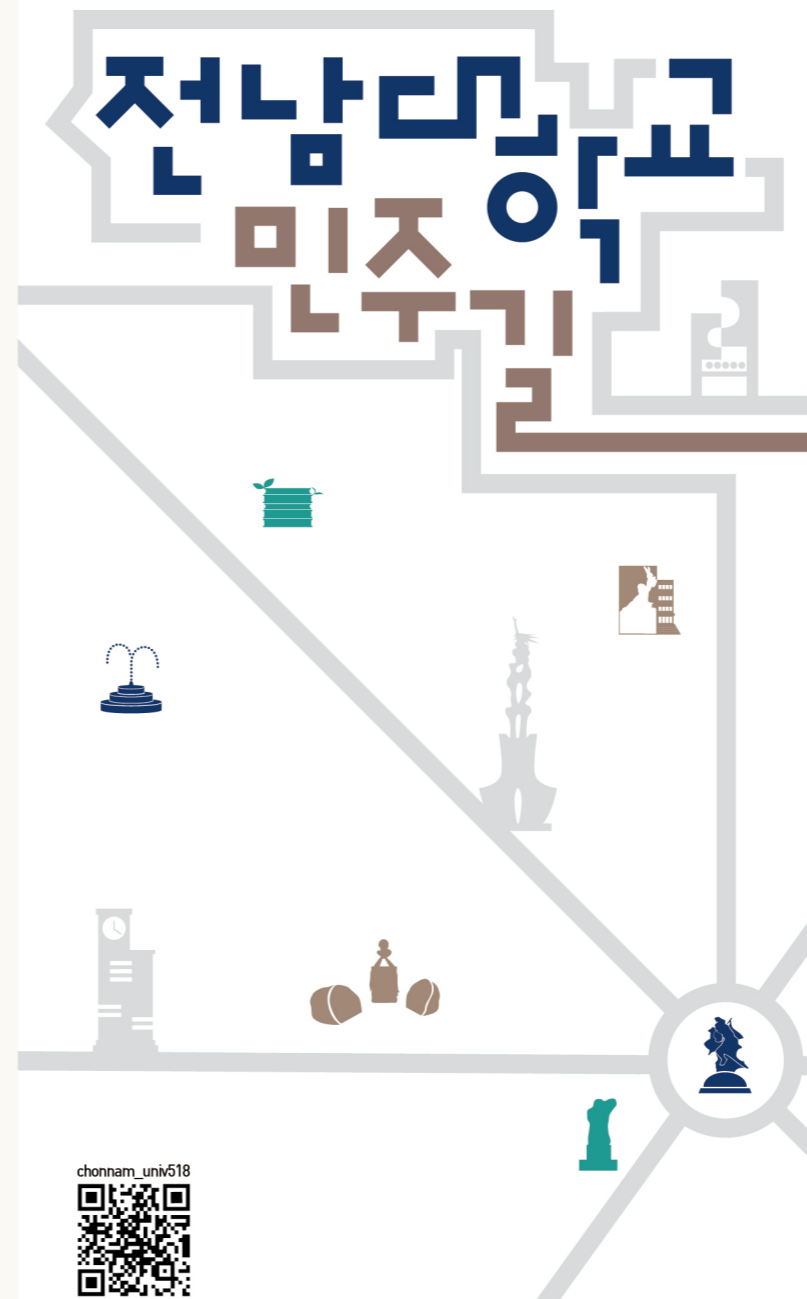
기부자 (서명)

전남대학교 발전후원회장 귀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대외협력과(우 61186)
전화 062-530-1137 이메일 fund@jnu.ac.kr 010-6710-0479
팩스 062-530-1139 홈페이지 fund.jnu.ac.kr [약정서 문자접수 전용번호]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민주길 기념공간

- 📍 평화의 길
- 📍 정의의 길
- 📍 인권의 길

A 5·18광장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진앙지



전남대학교 5·18광장은 1980년 5·18민중항쟁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위와 집회가 개최되었던 민주화운동의 기념비적 장소이다. 1980년 이후에는 5·18의 계승과 민주화, 통일 등을 열망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또 민족·민주 열사에 대한 추모 의례를 열기도 했다.

B01 박관현 언덕 민주화의 새벽기관차



박관현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군부의 폭력에 저항했던 민주열사이다. 1980년 4월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그는 학원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화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것이 5·18민중항쟁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1982년 4월 체포된 박관현은 광주교도소에서 '5·18 진상규명과 재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단식투쟁 중 1982년 10월 12일, 30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B02 윤상원 숲 오월광주의 영원한 대변인



윤상원은 5·18민중항쟁 당시 도청에서 최후까지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시민군이다. 그는 1978년부터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했으며,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 5·18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를 제작·유포했고, 새로운 항쟁지도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격에 31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B03 윤한봉 정원 5·18민중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회운동가이다. 그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 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 수 차례 옥고를 치렀다. 그는 5·18민중항쟁으로 수배되자 1981년 4월 미국으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청년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했다. 1993년 수배 해제로 12년 만에 돌아온 그는 5·18정신계승을 위해 노력하다가, 2007년 6월 타계했다.

B04 김남주 뜰 그 이름 석 자가 칼이요, 시였던 혁명시인



김남주는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위해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민중시인이다. 1973년 전남대 학생이던 그는 반유신 지하신문을 제작·유포하다가 구속되었고, 1979년에는 남민전 활동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1974년 시인으로 등단한 김남주는 가혹한 옥중 상황에서도 시를 썼고, 그의 옥중시들은 투쟁의 현장에서 민중의 구호와 노래가 되었다.

민주길 안내 지도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mocracy Trail

5.18km에 이르는 민주길은 정문에서부터
용봉관과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을 기반으로
3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진 11개의 공간이 연계되어 있다.



- A 5·18광장
- B01 박관현 언덕
- B02 윤상원 숲
- B03 윤한봉 정원
- B04 김남주 뜰
- B05 교육지표마당
- B06 벽화마당
- B07 오월열사 기억정원
- B08 용봉열사 추모의 벽
- B09 박승희 정원
- B10 전남대 정문



평화의 길 (1.5km) 전남대 정문 → 평화심터 → 윤한봉 정원 → 윤상원 숲

평화의 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꿈꾸고 실천했던 자들과 대한민국 통일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사건을 담은 길로 정문에서 학교밖 도로변녹지를 이용해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병원을 거쳐 수목원과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이어지는 서쪽 동선이다.

정의의 길 (1.7km) 전남대 정문 → 박관현 언덕 → 윤상원 숲 → 김남주 뜰 → 교육지표마당 → 벽화마당 → 5·18광장 → 박승희 정원 → 용봉관 → 전남대 정문

정의의 길은 전남대학교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오월정신의 역사성을 종합하는 상징적인 길로 5·18 민주항쟁 최초의 발원지인 정문에서부터 박관현 언덕, 윤상원 숲, 김남주 뜰, 교육지표마당, 벽화마당, 5·18광장, 박승희 정원 등이 집중돼 있다.

인권의 길 (2km) 전남대 정문 → 용지 → 전남대 동문(후문) → 오월열사 기억정원 → 용봉열사 추모의 벽 → 5·18광장

인권의 길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탄압의 현장과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인권 향상을 위해 투쟁했던 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길로 정문에서 운동장과 용지, 생활과학대학을 거쳐 동문(후문)을 지나 공과대학으로 연결되는 동쪽 동선이다.